박물관고을영월
YEONGWOL MUSEUM CITY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

뉴 스 레 터

YoungWorld 영월 YeongWol

- 2019년 10월 제22호 -

영월박물관협회 / TEL: 033-372-2911 FAX: 033-372-3011 www.ywmuseum.com

■ "주시경 선생님" 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영월초등교육박물관(관장 이재우)은 지난 10월 4일(화) 용인 교동초등학교(교장 홍재한) 4학년 학생들을 초청해 한글날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한글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이 행사는 한 시간은 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중요한 자료들과 함께 강의를, 한 시간은 한글의 창제 원리 및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글교육과 관련된 진귀하고 소중한 자료들을 관람하고 한글을 사랑했던 주시경 선생의 이야기와 우리나라 한글의 위대함과 더불어 독도사랑 교육도 같이 실시하였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한글 이라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라디오스타박물관 KBS원주방송국 " 라디오콘서트" 공동MC 참여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은 10월 27일 영월라디오스타박물관에서 개최된 KBS원주방송국 "라디오스타콘서트"산골음악회를 안현주 아나운서와 공동MC로 진행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민해경, 조승구, 영월 잉꼬부부가수 재재와 엘리스, C&S 뮤직, 문희옥이 함께 했다.

■ 제8회 영월인도포럼 개최

인도미술박물관(관장 박여송)은 지난 10월 19일 ~ 20일까지 2일간 "인도의 모디 제2기 정부 출범의 의미와 전망" 이란 주제로 영월인도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9년 총선에서 압승한 인도국민당(BJP)의 모디(Modi)가 주도하는 제2기 정부의 출범이 인도정치에서 갖는 의미와 인도정부의 향후 전망을 같이 논의해 보는 이번 포럼의 발제자는 오랫동안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인도의 경제와 정치를 분석해온 친디아 플러스(Chindia Plus)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용식 박사와 김광로 전LG전자 인도법인장, 최준석 전 조선일보 인도특파원, 윤경로 전 듀뽕부사장, 김찬완 한국외대교수, 오화석 배재대교수, 김연호 제천문화재단 이사장, 구완희 세명대교수, 김상현 세명대교수, 장범순 세명대명예교수, 백좌흠 경상대명예교수 등 많은 인도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나는 누구인가?" 박찬갑 조각전

국제현대미술관(관장 박찬갑)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 김광석거리 갤러리문 101 전시관에서 2019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역순회전 "나는 누구인가?" 박찬갑 조각전을 개최 한다.

■ 별마로 천문대 리모델링 12월 재개관

영월 별마로천문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장기휴관에 들어가 오는 12월초쯤 새롭게 재개관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천체투영기를 광학식 모델과 영상 표현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식 모델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구현 하는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계획으로 8m의 스크린 전면 교체와 냉난방 시스템 등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 《민화의 비상(飛上)》 전 개최

조선민화박물관(관장 오석환)은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20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제7관)에서 《민화의 비상(飛上)》전을 개최 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조선민화박물관 소장품 5,000여점 중에서 초현실주의가 표현된 소장품 20여점과 2000년부터 조선민화박물관이 개최해온 전국민화공모전의 수상자 단체인 민수회 소속 작가의 현대민화 32점이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국민화공모전 등 현대민화가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3년 전인 2017년부터 기획되었다. 현대민화는 유물을 되살린"재현민화"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민화"로 분류 되는데 그간 창작민화는 작품의 현대성에 대한 고찰 없이 무분별하게 창작을 가미 하면서 작가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에서 외면을 당해 왔다. 이는 조선 후기 민화가 선조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 대중화 되었던 바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민화의 비상(飛上)》전은 민화의 현대성을 고찰하고 다양한 현대적 방법론을 녹여내는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민화의 판로개척을 통한 대중화와 더 나아가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전시홍보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에서 박물관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현대민화중 재현민화에서 창작민화로 그 중심추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기존 민화계에서의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어 전국에서 활동중인 15만여 명의 현대민화 작가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민화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기회로 박물관 고을 영월을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전시 부대행사로는 오프닝이 예정된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예술 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이번 전시회를 협찬한 조선민화박물관 분관인 한국민화 뮤지엄과 공동으로 《제5회 한국민화뮤지엄포럼》을 개최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대민화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초현실주의를 담은《민화의 비상(飛上)》전의 기획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현대민화의 나아갈 방향등을 짚어 본다.

한편 조선민화박물관 오석환 관장은 전국민화공모전 20주년 기념행사인 이번 민화의 비상전을 현대 민화사(民畵史)를 새로 쓰는 중요한 시발점으로 삼고 전국 15만여명의 현대민화 작가들에게 민화의 대중화 가능성을 전하며, 박물관과 영월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수화조도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조선시대

■ 박물관 유물전시 기획전시관 운영

(사)영월박물관협회(회장 이재우)는 (재)산림힐링재단과의 찾아가는 박물관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재단 전시관을 활용한 박물관 유물전시 기획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6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운영되는 유물전시에는 박물관협회 소속 7개 박물관이 참여하며, 유물 20여점이 전시되어 박물관 고을 영월을 홍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관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재)산림힐링재단